

인 증 신 청 서

탐방 프로그램 해설가

| | | | |
|--|---|----------------|-----------------|
| 프 로 그 램 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 목 표 | 신흥사에서 의신사로 가는 옛길에서 불교문화가 꽃핀 삼신동의 고향 화개동천의 자연경관과 국립공원의 가치와 바른 이해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탐방문화의 정착, 비전제시 | | |
| 운 영 장 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구역내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 | |
| 유 형 |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type="checkbox"/>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 | |
| 범 주 | <input type="checkbox"/> 자연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해안생태 <input type="checkbox"/> 갯벌사구 <input type="checkbox"/> 거점해설 <input type="checkbox"/> 자연체험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경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경관 <input type="checkbox"/> 해안경관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탐방안내소 <input type="checkbox"/> 혼합() | | |
| 운 영 대 상 |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일반성인 <input type="checkbox"/> 장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소수자 <input type="checkbox"/> 가족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운 영 시 기 | <input type="checkbox"/> 봄 <input type="checkbox"/> 여름 <input type="checkbox"/> 가을 <input type="checkbox"/> 겨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없음 | | |
| 운 영 인 원 | 10~15명 이내 | 소요시간(분) | (실내 분/실외 90분) |
| 활 동 장 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왕성초등학교 ~ 의신마을 초입 | | |
| 특 성 | 신흥사 터를 지나 의신마을로 향하는 이 탐방로는 의신옛길을 배경으로 한 자연경관 설명과 지명의 유래 그리고 저지대 탐방을 통한 탐방문화 개선교육에 알맞은 지역이다. | | |
| 준 비 물 | 해설 주제와 관련된 각종 부교재(매회 달라짐) | | |
| 제 출 자 료 | 1. 인증신청서(관련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관련서식-2) 3. 프로그램 시나리오(관련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관련서식-4) | | |
| 국립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탐방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설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신 청 일 자 | 2012년 10월 | 신 청 인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인) |

프로그램 진행개요

| |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 목표 | 신흥사에서 의신사로 가는 옛길에서 불교문화가 꽃핀 삼신동의 고향 화개동천의 자연경관과 국립공원의 가치와 바른 이해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탐방문화의 정착, 비전제시 | | |
| 해설주제 | 신흥·의신옛길을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해설 및 국립공원의 이해 | | |
| 해설재료 | 국립공원, 자연경관 | 소요시간 | 120분 |

프로그램 진행순서

| 해설단계 | 해설단계 | 주요내용 | 준비물 | 소요시간(') |
|------|--------------|--|-----|-----------|
| 동기유발 | 1. 국립공원이란? | · 소개,인사, 해설프로그램 소개 · 국립공원에 대한 소개 | | |
| 해설주제 | 2. 삼신동과 화개동천 | · 삼신동과 화개동천의 유래 | | |
| | 3. 신흥사 | · 푸조나무와 세이암 · 신흥사 | | |
| | 5. 야생차밭 | · 감감바위의 유래 · 화개 차(茶)이야기 · 무명폭포 | | |
| 주제심화 | 6. 쇠점재 | · 쇠점재의 유래 쇠점터이야기 | | |
| | 7. 의자바위 | · 의자바위의 설명 · 서산대사의 도술설명 | | |
| | 8. 각자바위 | · 각자바위의 각자설명 · 서산대사와 당취들 · 영신사와 영신대 · 기도터 | | |
| | 9. 사지넘이고개 | · 사지넘이고개의 유래 · 지역의 역사이야기 | | |
| | 10. 주막터 | · 주막터이야기 | | |
| | 11. 개홀치바위 | · 개홀치바위의 유래와 호식 | | |

신청인 :

(서명)

프로그램 진행개요

| |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 목표 | 신흥사에서 의신사로 가는 옛길에서 불교문화가 꽃핀 삼신동의 고향 화개동천의 자연경관과 국립공원의 가치와 바른 이해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탐방문화의 정착, 비전제시 | | |
| 해설주제 | 신흥·의신옛길을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해설 및 국립공원의 이해 | | |
| 해설재료 | 국립공원, 자연경관 | 소요시간 | 120분 |

프로그램 진행순서

| 해설단계 | 해설단계 | 주요내용 | 준비물 | 소요시간(') |
|------|----------------|---------------------------|-----|-----------|
| | 11. 숲 가마터(숲곰터) | · 숲을 만드는 이야기 | | |
| 정리 | 12. 의신마을 | · 의신마을 이야기 · 의신사와 서산대사 | | |
| 마무리 | 13. 마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1. 국립공원 이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과 해설프로그램 소개 · 국립공원의 소개 |
| 만남 | <p>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 그리고 삼신동(화개동천)과 의신 옛길에 깃든 자연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한 이 시간이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의신옛길 속으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p> |
| 국립공원 이란? | <p>조금 전 제가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먼저 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p> <p>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문화, 역사, 경관자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p> <p>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몇 개 있을까요?</p> <p>20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p> |
| 지리산국립 공원에 대하여 | <p>그럼, 잠시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출발하도록 할까요?</p> <p>지리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 보존의 가치와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악형 국립공원으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죠. 그 면적이 3개도(경남, 전남, 전북)와 1개시 그리고 4개군을 포함하고 있어 무려 483km²나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죠? 여의도 크기의 56 배가량의 넓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p>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2. 삼신동과 화개동천 | · 삼신동과 화개동천의 유래 |

| | |
|----------------------|---|
| 삼신동(三神洞)과 화개동천(花開洞天) | <p>이 바위를 보시면 삼신동(三神洞)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새겼다고 합니다. 의신계곡을 따라 3개의 절, 즉 영신사, 의신사, 신흥사 등 이름에 신(神)자가 들어간 3개 절이 있어 삼신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p> <p>그 외 삼신동은 '청학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우리 민족이 꿈꾸어 왔던 이상향이자 무릉도원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p> <p>서산대사의 <화개동> 시를 보면 "...흰 구름 가리운 곳 개 짓으니/ 도화동 속에 사람이 있네."라고 읊고 있습니다. 천왕봉 아래 화개의 대성리 어딘가 도화동(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디가 청학동인지 정확히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학동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p> <p>화개면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덕왕 12년(713년)에 육조 혜능대사가 입적하고 그 후 삼범스님이 '육조'의 어록집인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유통부촉(流通付囑)> 편의 "...내(6조)가 입적한 후 5~6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와서 나의 머리를 가져가려니..."라는 예언의 구절을 보고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삼범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 육조 혜능의 정상(頂相)을 가져와 경주의 영묘사(靈妙寺)에 모시고 매일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삼범스님의 꿈에 육조 혜능이 나타나 이곳은 나의 인연 터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했다고 합니다.</p> <p>"나 이 땅에 돌아온 것은 부처님 나라와 인연이 있음이라. 강주(진주)의 지리산 아래 눈 속에 칙꽃이 핀 곳, 사람 사는 곳 꿈속 같고 산수는 연꽃 같이 묘하다네. 내법은 본래 무심하니 나의 무덤 만년의 복전이니라."</p> <p>이 꿈의 계시를 받고 대비스님과 함께 지리산을 뒤희다가, 마침내 12월인데도 따듯하기가 봄날과 같고 눈 속에서도 칙꽃이 만발한 곳을 찾게 되어 정상을 깊이 봉안하고 암자를 세웠다고 합니다.</p> |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 · 의신옛길의 역사 · 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3. 신흥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조나무와 세이암 · 신흥사 |
| 푸조나무와 세이암 | <p>저기 앞에 보이는 큰 나무가 보이나요? 이나무는 푸조나무라고 하며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은둔에 들면서 지팡이를 쥔았는데 지팡이에서 가지가 돋아 지금의 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고운 선생이 말하기를, “이 지팡이가 살아나면 나도 신선이 되었으리라.”고 하며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으로 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푸조나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죠? 아직 고운 선생님께서는 신선으로서 영생을 누리 고 있는 것 같습니다.</p> <p>또 이 앞에 있는 계곡을 보시면 고운 선생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귀를 씻었다고 하는 세이암(洗耳岩)이 있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신선이 되었던 고운 선생의 의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p> <p>이곳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운 선생이 세이 암에 각자를 새기고 손을 씻는데 참게가 고운선생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합니다. 고운 선생이 노하여 게에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말 하며 계곡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 후부터는 참게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참게가 이곳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 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p> <p>앞에 보이는 산은 지네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적인 면에서 볼 때 저기 왕성초등학교 주위를 ‘암탉이 알을 품은 지형’이라고 합니 다. 닭과 지네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지네산의 기를 누르기 위해 지네 산 줄기에 저렇게 정자를 지어 지네산의 힘을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곳 왕성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다고 합니다.(*생략?)</p>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3. 신흥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조나무와 세이암 · 신흥사 |
| 신흥사 | <p>저기 있는 건물은 왕성초등학교인데요. 이곳은 과거 신흥사(신흥사)가 있던 곳입니다. 영신사, 의신사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었지요. 칠불사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과 선비들이 들렀던 곳이라고 합니다.</p> <p>신흥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통일신라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15년 신흥사의 '철조여래좌상'을 서울박물관으로 옮겼는데 이 불상이 통일신라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신흥사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칠불사가 있는 범왕리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흥교(홍류교?)가 있었고 그 수각에서 신흥사 쪽으로 능파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옛 시인 묵객들의 유산기에 그 아름다움을 찬사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붉은빛의 수흥교와 암석과 계곡이 어울려지는 능파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p> <p>서산대사는 이곳 신흥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p> <p>“맑은 시내와 꽃다운 물은 학이 노니는 것 같고, 물에 떨어진 꽃이 흘러가는 모습은 무릉도원의 정취가 있고, 가을엔 비단에 놓은 듯한 단풍의 아름다움이 있다.”</p> <p>자, 그럼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삼신동을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안전산행 교육 및 스트레칭)</p> <p>출발에 앞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꼭 지켜주세요.</p> <p>신흥~의신 옛길의 탐방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한 줄로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으로 계곡을 따라 가는 길이라 경치가 수려하지만, 그 바로 아래가 천길 낭떠러지거든요. 다시 한번 안전에 주의를 기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그럼 간단히 몸풀기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p>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 | |
|---------|--|
| 4. 야생차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감바위의 유래 · 화개 차 이야기 |
|---------|--|

| | |
|----------|--|
| 감감바위의 유래 | <p>(감감바위를 가리키며) 이 바위의 이름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요? 바위 밑 절벽을 한번 보세요. 참 아득하죠?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은 감감바위라고 합니다. 높이가 26m나 됩니다. 정말 감감하죠!^^ 화개장터에서 붓짐을 지고 온 장수가 이 감감바위에 걸터 앉아 앞으로 넘어야할 세석과 벽소령을 보고 갈길이 캄캄하다해서 감감바위라고도 합니다.</p> |
|----------|--|

| | |
|------------|---|
| 화개 차(茶)이야기 | <p>화개는 ‘차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의 시배지이며 오랫동안 왕에게 차를 진상하였던 곳이지요. 옛날 초의선사는 <다신전>과 <동다송>에서 화개 차의 우수성을 노래했고,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러했다고 합니다.</p> <p>차의 학명은 <i>Camellia sinensis</i>(L)라 하며 사철 푸른 관목입니다. 뿌리는 직근성으로 사질토양이 알맞으며 이른 봄에 첫 잎을 따 차를 만들어 마시죠. 첫잎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구분하는데, 곡우 전에 딴 잎을 우전이라 하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p> <p>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중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茶)의 시배지로 예부터 이곳은 나라에서 직접 차 수확을 관리하던 곳입니다.</p> <p>그 예로 한다사현(하동군)이 아닌 강주(진주)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며 역불정책이 행해졌던 조선시대에도 차수확을 관리하던 승수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은 승려가 아니더라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차 수확을 중요시하며 불교 또한 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 화개동입니다.</p> |
|------------|---|

| | |
|--|------------|
| |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 |
|---------|--|
| 4. 야생차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감바위의 유래 · 화개 차(茶)이야기 |
|---------|--|

| | |
|--|--------------------------|
| <p>일찍이 서산대사는 화개 차에 대해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서산대사집》 P.286 참조)</p> <p>천옥선자(天玉禪子)</p> <p>낮에는 한 잔의 차/ 밤이면 한바탕 잠일세. 푸른 산과 흰 구름/ 함께 무생사(無生事)를 말하네</p> <p>차를 즐기며 자연과 함께 수행에 전념했던 서산대사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p> <p>우리나라에서 차가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알아보까요. 우리나라 차 유래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설이 있는데요.</p> <p>첫째, 우리나라 자생설입니다. 영산인 백두산과 지리산에는 예부터 영초인 차나무가 자생했다는 것입니다. 화개면 정금리에는 수명이 약 1300년으로 추정되는, 고(古)차나무가 있습니다. 이 차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p> <p>둘째, 인도에서 전래했다는 남방전래설입니다. 허황후의 오라버니인 보옥화상이 수로왕의 일곱 왕자를 데리고 이곳 칠불사에 와서 수도 후 성불했다는 이야기와 화개골의 차는 이들이 심은 유종이라 전하지만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셋째, 중국에서 전해졌다는 설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어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설입니다. 삼국사기 <신사본기> 흥덕왕 3년(서기 828년) 조에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공이 중국의 차 씨앗을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라. 이미 차는 선덕여왕(632~646년)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p> <p>대렴공이 차를 가져오기 이전에도 통도사, 화엄사, 쌍계사의 창건 설화에 창건주들이 차씨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도 경덕왕(765년)과 충담스님과의 차 이야기, 신문왕(681~692) 때 보천-효명 두 왕자가 오대산에서 차 공양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p> <p>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흥덕왕 때 차씨를 심었다고 하나 200년 전인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p> | <p>화개 차(茶)이야기</p> |
|--|--------------------------|

| | |
|--|-------------------|
| | <p>신청인 : (서명)</p> |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6. 쇠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명폭포 · 쇠점재의 유래 |
| <p>무명폭포 -탐방객이 이름 짓기 하면 어떨까요?</p> | <p>저기를 한번 보세요. 큰 바위계곡에 제법 물량이 있는 폭포가 보이지요. 이 폭포는 아직 이름이 없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김춘추의 <꽃> 참조)</p> <p>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p> |
| 쇠점재의 유래 | <p>작은 언덕이 나오죠? 이곳부터는 길이 미끄럽고 경사가 조금 있으니까 잠시 앉아 쉬면서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p> <p>이곳은 ‘쇠점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언덕 뒤에는 쇠점터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요.</p> <p>옛날 여기서 말굽을 만들거나 의신사와 신흥사의 범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쇠를 다루던 곳이라 하여 ‘쇠점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쇠점터를 넘어가는 이 고개는 ‘쇠점재’가 된 거죠.</p> <p>쇠점터에 가보면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산속에 어울리지 않게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확실히 쇠를 다루던 곳이 위치하기 좋은 터입니다.</p> <p>위성사진을 보면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 쌓여 산불이 나는 걸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쇠를 녹이기 위한 숯이나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물또한 구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있습니다.</p> <p>쇠점터에서 의신사의 범종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말발굽이나 농기구등을 만들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p> |
| |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홍·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의자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바위의 설명 · 서산대사의 도술설명 |
| 의자바위와 서산대사 | <p>여러분, 이 바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꼭 의자처럼 생겼지요. 사람이 앉기에도 적당한 크기네요. 이 의자바위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임진왜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왜병들이 이곳까지 쳐들어와 의신사를 불태우고 범종을 훔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 멀리 영신사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서산대사가 도술을 부려 범종을 의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자신들이 들고 가던 범종이 갑자기 의자로 바뀌는 모습을 본 왜병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을 갔죠. 그때부터 의신사 범종은 이 길을 지나는 이들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슬픈 이야기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도술을 겨룬 이야기 한 토막 넣기) 서산대사가 금강산 장안사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명대사였지요. 곧 법당에서도 한 스님이 나왔는데, 사명대사보다 23살이나 많은 서산대사였습니다. 사명대사를 맞이하려 나간 거죠. 그 순간 사명대사가 참새 한 마리를 손으로 잡아 외쳤습니다. "대사님 지금 제 손엔 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죽을까요, 살까요?"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이죠. 새의 생명은 사명대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대답해도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서산대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대사! 지금 내 한 발은 법당에, 한 발은 밖에 있으니 지금 나는 들어갈까요, 나갈까요?" 이 또한 무척 난감한 질문이죠. 허나 사명대사는 방문한 손님을 맞을 터이니 나오리라 생각하고 "그야 나오시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허허, 그대의 말이 맞소 멀리서 수고스럽게 오신 손님인데 당연히 나가서 맞아야지요. 그리고 대사님같이 불도에 정진하시는 분이 살생이라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만의 인사를 나눈 후 사명대사는 자기가 온 경위와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서산대사는 그 모든 걸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얼마 뒤 본격적인 도술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사명은 바늘이 담긴 그릇을 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바늘을 국수로 만들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먹고 서산대사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서산대사는 먹던 국수를 다시 바늘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명대사는 이번엔 계란을 꺼내더니 썩아 올렸습니다. 계란은 무너지지 않고 썩아 올라갔습니다. 이를 보던 서산대사는 믿기지 않게 대응했습니다. 계란을 공중에서 거꾸로 썩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러자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와 우레와 함께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대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산대사도 합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먹구름이 밀려나고 내리던 비가 거꾸로 오르더니 새들로 변했습니다. 사명대사는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제자로 삼아 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 두 대사는 어려운 시국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p> |
| |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8. 각자바위 (정유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바위의 각자 설명 · 서산대사와 당취들 · 영신사와 영신대 · 기도터 |
| 각자바위의 각자설명 | <p>저 아래 터가 넓은 바위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앉아 쉬거나 놀기 편하다고 해서 정유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옛사람들이 바위에 시를 써서 각자를 새겨놓아 각자바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p> <p>일경일위유수지 一經一緯有誰知 (날줄이 하나이면 씨줄도 하나임을 누가 알리오) 수유중횡역부지 雖由縱橫亦不知 (비록 중횡으로 오고 가더라도 또한 알지 못할 것이라) 의혹인인막심구 疑惑人人莫深究 (의혹하는 사람들도 깊이 궁구하지 마소) 상중직자자연지 相從織者自然知 (베 짜는 이와 상중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동초우제 東樵又題 (동초가 또 짓다)</p> <p>여기서 날줄과 씨줄은 쌍계사 진감선사와 최치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서산대사가 1549년 봄 쌍계사 중창기에 ‘일경일위’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베라는 것이 씨줄 날줄 하나하나 모여 된 것이니 결국 인드라망의 세계를 말하고 이 세상이 그 물코같이 엮여 있고 그런 것은 자연의 이치니 씨줄 날줄 모두 그 역할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p> <p>성자심지리 性者心之理 (性是 마음의 주재자요) 심자성지기 心者性之器 (마음은 性的 도구이다)</p> <p>이 글은 누구의 글씨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옆에 김석곤과 같이 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p>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8. 각자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바위의 각자 설명 · 서산대사와 당취들 · 영신사와 영신대 · 기도터 |
| 서산대사와 당취들 | <p>암호문자가 있는 바위(단천마을 입구 계곡) "암호문자인 새김글자(刻字) 네 자는 한자 이름 '崔興命'에서 나왔으며, '최흥명'은 서산대사를 가리키는 비밀 이름이었으며, '최치원-청허당-최흥명'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암호문자 바위의 위치 및 지리산의 관련성은 단군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며, 암호문자는 주역의 괘(卦)의 원리에 따라 암호화되었으며, 그 풀이는 암호문자의 주인공이 역성혁명을 도모할 것임을 나타내고, 역성혁명을 위한 준비로서 당시 당취(黨聚-맹추-맹초)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승병을 조직·관리하였고, 이는 임진왜란 시에 그가 승병장으로 활약하게 된 기반이 되었으며, 정여립의 난, 허균, 양사언 등과의 관련성 및 역성혁명의 비전을 알게 되었으며, 서산대사는 단순한 선승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단군으로 자처한 당취 계열의 신불승(神佛僧)이었다."라는 것입니다.</p> <p>글자는 4자로 全崔(興天),命인데 全자를 파자하면 人+王, 崔자를 파자하면 仙+王, '興天'은 요상하게 두 字를 한 글자처럼 새겨놓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생략?)</p> |
| 영신사와 영신대 | <p>저기, 저 멀리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죠? 저곳이 '영신대'라는 곳입니다. 그 밑에는 절터가 있는데 그곳에 영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신동에 있는 '神'자가 들어가는 3개의 절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신사입니다. 여기서 봉화를 피우면 저기 영신사에서 보여 미리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p>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 | |
|----------|--|
| 9.사지넘이고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지넘이고개의 유래 · 지역의 역사 이야기 |
|----------|--|

| | |
|--------|---|
| 사지넘이고개 | <p>이곳은 경사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지넘이고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지를 넘어갈 듯이 험한 곳이라는 뜻이지요.</p> <p>이곳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아래 있는 모암마을 이장님으로 계신 분의 어린 시절 경험담입니다. 열두 살 때 의신에서 만든 실타래 60개를 등에 지고 신흥 삼거리까지 오면 개당 1원씩 쳐서 6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어른들은 한 짐에 100~120개까지 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지넘이고개를 넘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p> <p>지리산은 별목으로 얼룩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뒤에 두고 지리산의 고목들을 잘라낸 이들은 그 범죄가 탄로 나자 증거인멸을 위해 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옛 지리산 세석고원의 울창한 숲들은 이 별목꾼들이 놓은 불로 고사목이 되었으며 하얀 뼈를 드러내 놓고 서 있습니다.</p> <p>60년대에는 지리산에 제재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신에도 있었고 회강이골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른 나무를 쪼아서 지게로 일일이 등짐을 쳐서 옮겼다고 합니다.</p> <p>화개는 협포라고 불릴 만큼 협곡이 많고 넓은 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재소에서 만든 나무를 등짐 쳐 날라주고 품삯을 받거나 닥나무를 가공해 종이를 만들어 팔거나 누에를 키워 누에고치를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p> |
|--------|---|

| | |
|--|-------------------|
| | <p>신청인 : (서명)</p> |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 | |
|---------|-----------|
| 10. 주막터 | · 주막터 이야기 |
|---------|-----------|

| | |
|-----|---|
| 주막터 | <p>여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길에 홀로 서 있는 이 집은 언제부터 여기서 있었을까요?</p> <p>지금은 여름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지만 오래전 이곳에는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섬진강을 따라 하동에서 배를 타고 온 수많은 장돌뱅이들은 이 길을 걸어 벽소령을 넘어 함양을 지나 한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화개장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더욱 성행할 수 있었습니다.</p> <p>화개에 장이 크게 열렸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섬진강을 통해 물품들이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었고 대부분 등짐을 지고 이동했는데, 배로 물품을 운반해 올 수 있던 곳이 화개장터까지여서 많은 물류들이 이곳으로 집중되어 물물교환이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죠. 하동에서는 소금과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 등 해산물들이 남원과 구례에서는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이나 내륙의 특산물들이 화개 계곡에서는 지리산에서 나는 약초와 임산물, 짐승가죽들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지방의 산물이 이곳에 모였다가 등짐장수들에 의해 영남내륙은 장터목으로 전라도 내륙과 충청도 등지는 벽소령과 화개재를 통해 지리산 종주능선을 넘어갔습니다.</p> <p>신흥사에서 의신마을까지는 중간에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길 중간에 주막을 차리고 장돌뱅이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어찌면 이곳 주막에서 수많은 장돌뱅이들이 시원한 막걸리와 펼 펼 살아 뛰는 물고기 회를 먹으며 왁자지껄한 판소리와 육자배기를 부르는 남사당패들과 어울리던 곳일 수도 있겠지요. 그 옛날 물소리 시원한 이곳에 울려 퍼졌을 전국의 입담과 풍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p> |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 |
|-----------|-----------------|
| 11. 개홀치바위 | · 개홀치바위의 유래와 호식 |
|-----------|-----------------|

| | |
|--------------|---|
| 개홀치바위 | <p>이 전망이 좋은 곳은 개홀치바위라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 망바위라고도 하고 또 도깨비불이 일렁여서 도깨비바위라고도 합니다.</p> <p>개홀치란 말은 이곳 방언인데 개를 훑어간다. 즉 개를 물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개를 물어간다니 무서운 맹수였겠지요? 호랑이나 표범, 스라소니 등 고양이과 맹수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p> <p>옛날 사람들은 산에 갈 때 항상 개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는 호식, 다시 말해 호랑이 밥으로 데려갔는데 사람과 개가 같이 있으면 개를 물어갔다고 합니다. 호식은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먹었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p> <p>이 맹수들은 장난을 좋아해서 사람한테 흙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토표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호랑이보다는 표범이나 스라소니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또 호기심이 많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 동물들의 공통적으로 흙을 뿌리고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기절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개갈가지, 갈가지, 개오지, 개호지, 호주, 납작바리 등으로 불립니다. 모두 고양이과 맹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양이과 맹수들은 인광이 비치는데 이 불빛을 보고 도깨비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도깨비바위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까지 개홀치가 목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p> <p>이 길에는 지금도 야생동물-멧돼지, 삿, 너구리, 다람쥐 등-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그들이 싸놓은 똥이지요. 누구의 똥인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또한 여기 계곡에는 수달도 살고 있습니다.</p> |
|--------------|---|

| | |
|--|------------|
| |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 | |
|--------------------|--------------|
| 11. 숯 가마터 (숯굽터) | · 숯을 만드는 이야기 |
|--------------------|--------------|

| | |
|-------|---|
| 숯 가마터 | <p>여기 둥그렇게 돌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던 곳이였을까요? 바로 숯을 굽던 곳이었습니다. 숯 가마터라고 하는데 여기 말로는 ‘숯굽터’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숯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숯이 아닌 장작을 배에 실어 부산까지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절의 나무 연료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지요. 산업화를 지나기 전에는 집마다 아궁이에 밥을 지어먹고 구들장으로 난방을 했습니다.</p> <p>우리가 흔히 아는 참숯은 참나무로 만든 겁니다.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를 가지고요. 숯을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나무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덩이 안에 참나무를 비슷한 크기로 잘라 차곡차곡 재어놓습니다. 입구 아궁이에 불을 지피 위에서 아래로 타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다 타고 나면 끄집어내 모래나 흙을 덮어 질식소화를 시키거나 구덩이의 입구를 막아 산소를 차단해 숯을 만들어냅니다.</p> <p>나무 10톤을 사용하면 1톤의 숯이 나온다고 합니다. 숯은 제조방법에 따라 백탄과 흑탄으로 나뉘는데 백탄은 나무를 고열로 구운 후 소분(消粉)이라는 흙을 덮어 두면서 소화시킨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일반적인 목탄을 600도~900도의 수증기를 이용해 다시 열처리를 함으로써 생산됩니다.</p> |
|-------|---|

| | |
|--|------------|
| |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12. 의신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신마을 이야기 · 의신사와 서산대사 |
| 의신마을 | <p>저기 보이는 마을이 의신마을입니다. 의신마을은 신(神)이 머물고 갔다고 할 정도로 경치가 수려한 마을입니다.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남남정맥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마을입니다. 멋들어진 기암괴석과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여 신비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지요.</p> <p>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산지인 의신사, 서산대사가 출가하고 득도한 원통암, 조상의 삶과 슬픔을 고스란히 담은 지리산역사관, 의병묘, 당산제 등 의신마을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p> <p>마을은 처음에 절과 관련된 사하촌으로 형성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지리산의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청학동으로 알려지고 벽소령과 세석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p> <p>의신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효온(1454~1492)의 《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와 김일손(1464~1498)의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에 나와 있는데요.</p> <p>《지리산일과(智異山日課)》에는 “절 서쪽은 대나무 숲으로 가득하였고 방앗간과 뒷간도 대숲 사이에 있었다. 법당에 금칠한 불상 한 구가 있었는데 승려가 의신조사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에는 “절은 평지에 있었으며, 절의 벽면에는 김언신김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 주지 법해(法海)와 30여 명의 승려가 정진하고 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p> <p>이 15세기 의신사의 기록을 증명하듯 의신마을 뒤편에 의신사 옛터에는 석종 모양의 법해당(法海堂) 부도가 있습니다.</p> |
| |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12. 의신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신마을 이야기 · 의신사와 서산대사 |
| 의신마을 | <p>이 길에서 서산대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길은 다른 이름으로 '서산대사 옛길'이기도 합니다.</p> <p>그렇다면 서산대사는 누구일까요? 범명은 휴정이며 백화도인, 풍악산인, 두류산인, 묘향산인, 조계퇴은, 병로 등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p> <p>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왜구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승병장입니다. 유(儒), 불(佛), 도(道)는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삼교통합론(三敎統合論)을 주장했지요.</p> <p>속세의 이름은 최여신(?)이고, 호는 청허(淸虛)-서산(西山). 1520년 안주에서 태어났고 1534년 15세 때 과거에 낙방하자 지리산 의신동에서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화개동의 여러 사암(寺菴)에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선가귀감》도 화개동의 내은적암에서 집필했습니다. 내은적암은 신흥사의 뒷산에 있었던 암자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요. 그러나 화개의 삼신동 어디에 대사의 유적이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p> <p>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나라 불교역사상 두 가지의 공덕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왜구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승군을 창설하여 국란은 타개했고 선교양종을 통합하여 선교병수주의를 창도한 점입니다. 이는 우리 불교가 신라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온 호국 불교사상의 선양과 발전이며, 선교의 통합은 불교역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나중에 좀 쉽게 풀어볼까요?)</p> |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삼신동(三神洞) 신흥·의신옛길의 역사·문화해설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13. 마무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과 답변 · 마지막 인사 |

| | |
|------------|--|
| 마무리 | <p>지금까지 최근 새롭게 꾸린 의신옛길을 걸어보면서 이 길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의신옛길’은 의신마을에서 신흥마을까지 도로가 뚫리기 전에 다닌 길입니다. 1960년대까지도 이 길을 걸어 의신에서 신흥, 의신에서 범왕 등의 마을을 다녔다고 합니다. 길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길에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p> <p>이 길은 또한 서산대사의 발자취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서 ‘서산대사 옛길-삼교회통의 길’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p> <p>계곡을 따라 걷는 4.3km의 이 호젓한 오솔길을 걷는 기분이 어떠했나요?</p> <p>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는 한 발 다가섰던 이 자연을 소중히 지키는 마음을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발 한 발 걸었던 이 길이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p> <p>감사합니다.</p> |
|------------|--|

신청인 :

(서명)